

국회 속기록 봐도... 인터넷서도... 지하철에서...

욕설 - 폭언 난무하는 사회

말이 거칠어졌다. 아예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 어른이나 학생,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신문과 잡지를 가리지 않고 험한 말들이 마구 오간다. 이러다가는 '욕설 사전'이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모를 정도다.

"짜가지 없는 X"이라고 한 발언이 실려있다. 또 지난 7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제16대 213회 속기록에는 자리에도 없는 이회창 총재에 대해 사대질까지 하면서 "이회창 대표 정신 차리시오"라고 하는 등 욕설이 가까운 비난의 말을 마구 쏟아놓은 국회의원들의 정대철 의원의 발언이 그대로 표현돼 있다.

이라는 말이 나오나" 서울 모 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노조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놓고 두 사람이 신랄하게 욕투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다.

지하철에서 나는 대화다. 또 길을 가던 한 엄마는 아이에게 "에이, 이XX 왜 그렇게 말을 안들어. 너 집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한다.

▲국회 속기록에서 본 저질 대화 99년 12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제15대 제208회 속기록을 보면 국회 정무위에서 한 남성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에 "나도 너같은 말이 있다. 딸밖에 안되는 딸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느냐. 뱀을 서너 차례 맞아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며

▲인터넷에 올라 온 욕설 "나는 니 예미 예미 때릴때도 쇠몽둥이로 XXX 내리쳐나 X X야" "나가 한 번 맞아봐, 말도 안먹히는 광선도들같이 얼굴 빨개져서 달려들고..." 과잉진압 ▲일상생활의 폭력적 언어 "세X, 그 X X 왜그러냐. X 나게 말 안듣더러구." "병신같은 X X, 그걸 그냥 줘? 그러니까 개가지 X X야." 두 고등학생이

이들은 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말로 하다 안되면 맞고함과 사대질, 심지어는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차원에서 욕설은 아예 신사적일지도 모른다. <대미타경>에 "거친 말을 멀리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해치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름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있

"좋은 말은 저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대미타경

"난지도 골프장 건설 반대"

12개 환경단체 서명운동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서울 난지도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생태공원으로 살려내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등 1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는 난지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맞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학자들은 '친환경적인 골프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금 막 되살아나고 있는 난지도에는 300여종의 식물종이 들어와 있고 생태천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 휴식공간도 좋지만 굳이 생태적 가치가 큰 난지도를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약 환경보다 개발이익만을 앞세운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낫다. 자연은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난지도는 되살아나고 있다.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말 난지도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골프장 설립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인간배아 간세포 배양 성공

국내연구진 세계에서 3번째

다양한 암, 심장병 등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와 조직을 만들어주는 인간배아 간세포 배양이 국내에서도 성공했다. 의료법인 마리아 산부인과병원 기초의학연구소 박세필 소장은 지난 30일 '장자·난자 수정 후 5일까지 시험관에서 배양된 상태로 냉동보존된 수정란에서 배아 간세포를 따로 떼어내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배아 간세포는 인체 특정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배양조건을 맞춰주면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와 조직을 공급할 수 있어 미래의학을 이끌 '꿈의 세포'로 불린다. 인간배아 간세포 배양 성공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이며, 냉동보존된 배아조직을 이용해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과학적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절차없이 진행된 인간배아 연구윤리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 '러브호텔' 주택가까지 난립

일산, 분당, 중동 등 신도시 지역에 '러브호텔'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어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들 도시 일대에 난립한 숙박 업소는 모두 140여개. 여기에 카바레와 토크쇼, 단란주점 등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는 모두 120여개를 합치면 가히 '환락의 도시'로 불릴 만도 하다. 특히 일산 대화동의 경우 10여개의 러브호텔이 마치 단지를 이루듯 한 곳에, 그것도 초등학교에 인접해 들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일아람정>에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림정사에 계시 때 한 사람이 문안드리며 여쭈었다.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성(城)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흩어지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라 지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바람이 시절을 맞추지 않아 죽은 사람들이 길가에 널려있게 되니라.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번성하지 못하니라." 신도시들이 황폐해지지 않고,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당국과 시 관계자, 그리고 뒤돌린 욕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시론

자비로운 한가위

유대인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곱추가 가장 가벼울 때는 자기가 더 큰 혹을 짊어지고 있는 곱추를 보았을 때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위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나도 나보다 더 심한 장애인 만났을 때 내 장애가 작아보이면서 이 정도인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싶어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설을 잠시나마 거둬낼 수 있었다.

나누면 나 또한 행복하여 아마 같은 심리일 것이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불교방송의 "그리운 등불하나"에는 장애인들 위해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한 말씀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봉사를 갖다오면 자기가 얻어오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장애인 천사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겸손하거나 자족한 교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곳들은 어이없게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 '찾아오면 이들도 명절을 지내야겠지.' 오지 못하는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자기보다 못한 대상을 자꾸 만나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만 눈에 뜨인다. 그래서 욕설이 생기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여러 식욕에 빠져 고통스럽게 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귀찮아하고 함부로 대한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가을이 낭만보다는 곧 겨울이 올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을은 맛나는 계절이기 보다는 겨울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는 근심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런 이들의 걱정을 아랑곳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추석 명절 연휴로 들떠있다. 추석 선물세트가 열마라는 등 하며 백화점마다 고급품들을 쌓아놓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방귀희 (수태문학 발행인·방송작가)

가다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곳들은 어이없게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 '찾아오면 이들도 명절을 지내야겠지.' 오지 못하는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자기보다 못한 대상을 자꾸 만나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만 눈에 뜨인다. 그래서 욕설이 생기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여러 식욕에 빠져 고통스럽게 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귀찮아하고 함부로 대한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가을이 낭만보다는 곧 겨울이 올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을은 맛나는 계절이기 보다는 겨울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는 근심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런 이들의 걱정을 아랑곳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추석 명절 연휴로 들떠있다. 추석 선물세트가 열마라는 등 하며 백화점마다 고급품들을 쌓아놓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Advertisement for '불로화정' (불로화정 不老化精) health supplement. Includes text about its benefits for aging, a testimonial from a wo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wang Byung-ho's clinic.